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산업

모둠 명 : 오(5)징어

김예지, 박상하, 이예림, 하현정, 한아름

I. 서론

1. 주제 선정과 그 이유

울릉도에 체험학습을 다녀오며 보았던 것들 중 특히 관광지들과 관광산업, 음식 등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생겨 독도와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본 것, 그리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독도의 관광자원은 희귀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도와 동해 일대의 울릉도 관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방법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내용 모두 울릉도를 방문하였을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직접 배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사와 문헌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의 모든 출처는 보고서 아래쪽에 나와 있다.

II. 본론

1. 독도와 울릉도의 관광 산업

가.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 자원

울릉도와 독도는 지형 형성과 관련된 화산지형과 같이 독특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상으로 인하여 3개의 자연보호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고, 9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수한 자연 경관으로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는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화산 지형인 주상절리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해식동굴, 해식에 등의 해안지형이 발달해 있다. 또, 울릉도의 북면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독도는 특정 도서로 지정될 정도로 독특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독도는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어 번식하는 습새·바다제비·괭이갈매기 등을 비롯한 22종의 조류가 관측되었고,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울릉도와 독도의 생태 관광 자원

[출처: 울릉도·독도 관광(Ecotourism)의 현황과 생태관광기반에 대한 연구, 황상일]

유형	생태 관광 자원
문화 및 역사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리 고분, 투막집(우데기), 성하신당, 울릉도 호박엿, 태하 등대, 도동 등대, 이사부와 나무사자, 이규원의 문서, 해녀, 공도정책과 수비대 등 • 독도수비대, 영토문제 논쟁옛길(내수전과 천부 사이, 태하령, 성인봉 통과하는 길)
지형 및 지질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산지형(중앙화구구, 이중화산, 칼데라, 주상절리, 응회암, 현무암, 조면암) • 해안지형(해식애, 해식동, 해식아치, 파식대, 시스택, 자갈해안) • 풍화지형(타포니) - 울릉도 : 성인봉, 알봉, 나리분지, 송곳산, 관음도, 죽도, 알봉, 거북바위, 비파산 주상절리, 봉래폭포, 도동 해안산책로, 지하수와 나리분지. - 독도 : 탕건봉, 촛대바위, 삼형제굴바위, 한반도바위, 천장굴, 독립문바위, 코끼리바위 등
식물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희귀특산식물 및 군락지 등 - 성인봉 원시림, 나리동 울릉국화 섬백리향 군락지,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군락지 등 - 원식생 분포지(동백, 후박, 회솔, 섬잣나무, 솔송나무, 향나무) - 별채와 곰솔 • 인간과 식물- 명이(산마늘)
동물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 : 사동의 흑비둘기, 내수전 전망대의 갈새 등 • 독도 : 솔개, 물수리 등의 멸종위기종과 바다제비, 꿩이갈매기 등의 바닷새 • 특산물 : 울릉도 오징어, 따개비, 홍합, 전복

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관광 만족도 조사

[출처: 울릉도·독도 관광(Ecotourism)의 현황과 생태관광기반에 대한 연구, 황상일]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 울릉도 도동항을 출발하여 포항으로 운행한 '썬플라워호'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설문 응답지 250매 중 유효설문지 219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한 관광객의 성비는 남성 53%, 여성 47%이며 관광객의 연령대는 50대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가 26%였다. 직업 가운데 학생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 회사원, 공무원의 비율이 각각 18%, 17%, 13%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9세 이하의 초·중·고등학생이 15%이고, 20대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거주지는 경북(26%)과 대구(12%)가 비교적 많았다.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대부분 처음 방문하였으나, 31%는 울릉도를 다시 찾은 재방문객이다.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관광지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거나 만족한 경우가 각각 17%, 51%였으며, 매우 불만족하거나 기대 이하인 경우도 각각 2%, 9%를 차지하였다. 관광객의 대부분이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보러온다고 응답하였으며 관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역시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선택한 사람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친절한 주민과 청결이 각각 15%와 8%였다.

라. 울릉도의 관광

1) 관광객 추이

이러한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울릉도의 관광객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21만 9천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의 경기 침체의 여파로 1998년에는 거의 35%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0년에 19만 명을 다시 돌파하였지만 이후에는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2004년에는 다시 21만 명에 달하여 울릉도 관광이 활성화되는 듯이 보였지만, 2005년부터 18만 6천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차츰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만 3천 명에 달하는 등 약간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2) 울릉군의 관광 수입

울릉군의 관광 수입은 1970년대에 약 3억 원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97년에 263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와서 284억여 원으로 회복되었다. 2000년 이후 독도 관광이 열린 2004년에 340억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200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7년에는 37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선박에 의해서만 관광객 접근이 가능한 현실에서 기상 악화 시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선박을 통제하게 되므로 여전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태풍의 북상 시에는 적어도 1주일 정도 선박 운항이 통제되고, 기타 기상 악화도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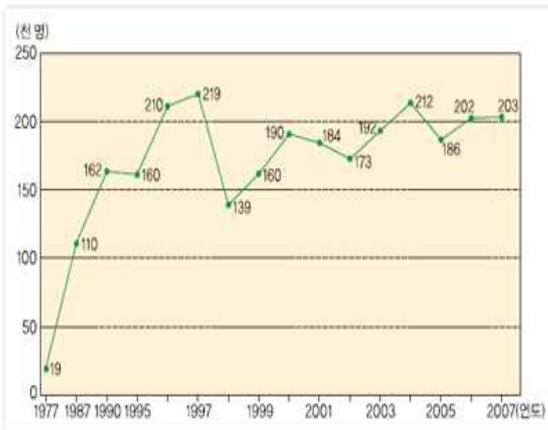


그림 1 울릉군의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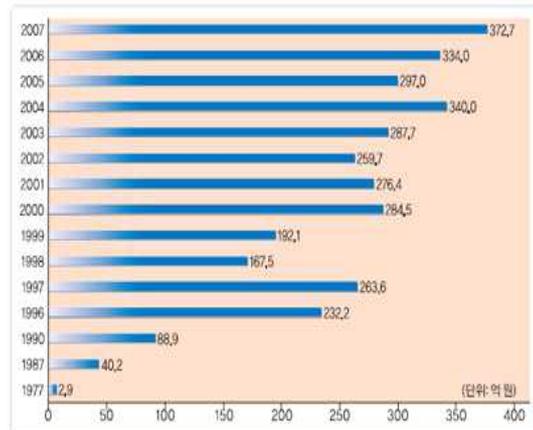


그림 2 울릉군의 관광 수입 추이

마. 독도의 관광객 추이

독도의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학술적·정치적·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독도의 입도가 어려웠지만, 1997년부터 입도 신청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져 독도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추이를 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2,000명 정도가 독도로 입도하였고, 2005년에 약 4만 1천 명, 2006년에 7만 8천 명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 와서는 1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11월까지 약 12만 6천 명이 독도를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관광은 입도 관광과 선회 관광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선회 관광은 매년 증가율이 약 10% 대를 유지하는 데 비하여 입도 관광은 약 68% 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독도 관광이 주로 교육적 성격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토 소유 의지가 향상되고 있는 관계로 선회 관광보다는 입도 관광을 선호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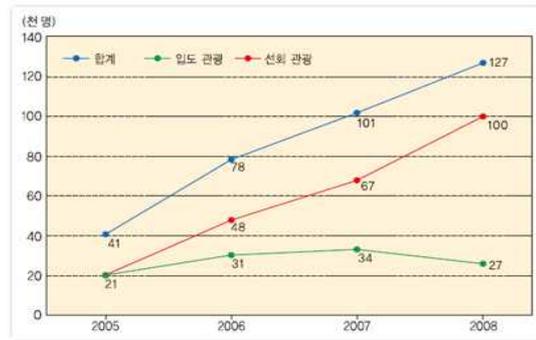


그림 3 독도의 유형별 관광객 현황

바. 선박 현황

독도 관광은 2005년부터 새로운 관광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을 위한 여객선 운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총 87.4km를 운항하는 독도 여객선은 독도해운 소속의 삼봉호, 씨스포빌 소속의 씨스타호, 대아고속해운 소속의 오션플라워호와 씨플라워호의 총 4개 선박으로, 모두 3~11월에 운항한다. 여객선 운항은 관광 성수기나 동절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고, 기상변화에 따라 운항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운항 서비스	선명	소요 시간	승선 인원	출발 시각
(주)독도해운	삼봉호	약 5시간	210명	부정기 운항
(주)씨스포빌	씨스타호 Seastar-ho	약 3시간	445명	
(주)대아고속해운	오션플라워호 Oceanflower-ho	약 3시간	445명	
	씨플라워호 Seaflower-ho	약 4시간	423명	

표 2 울릉도와 독도의 운항 선박 현황 [출처: <http://www.dokdo.go.kr>]

2. 독도와 울릉도의 관광지

가. 독도의 관광지

독도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보고이다. 독도는 아주 작은 섬으로 특별히 관광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동도의 접안시설에 약 40여분 동안 체류하며 먼발치에서 구경해야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 독도 영토 표석

이 표석은 1954년 8월에 세워졌는데, 일본이 해상 보안청 순시선을 이용해 독도에 불법적으로 상륙을 일삼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1953년 6월 23일 일본 정부는 독도에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시마네현 온지군 고까무라촌 다케시마)라는 나무 표식과 함께 ‘일본 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거친 외국인 이외는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도서 연안 3리) 내에 들어감을 금함’이라는 경고판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이 무렵 일본 정부의 독도침범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식 설치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문제에 관한 관계관 회의>를 열어 동도에 측량표를 설치하기로 했다. 1953년 9월 24일 외무부 장관은 측량표 설치의 주무부서인 내무부 장관에게 측량표 설치를 요청했다. 10월 7일 내무부 장관은 경상북도 지사에게 <수제 측량표> 설치를 지시하였다. 경상북도 경찰국과 내무국이 중심이 되어 제작된 수제 표석은 울릉군에 전달되었고 1954년 8월 28일 독도경비초사(제10편 독도경비대 숙소 참조)와 함께 설치되었다. “실효적인 관할 하에 있다는 유형적인 증거로서” 설치된 수제 표석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임을 알 수 있기에 관광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 독도경비대 막사

이 막사는 동도 정상에 있는데 최초로 지어진 때는 1954년 8월이다. 처음 이곳에 상주하며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독도의용수비대이고 1955년부터 경찰이 지키고 있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이곳에 터를 닦고 군대를 상주시킨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일본이 볼 때, 독도는 동해를 감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곳에 망루를 세우고 군인을 상주시키기 위해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다. 지금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여는데 일본은 국제법

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독도경비대 막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기 휴가도 없이 열심히 노력함을 알 수 있다.

3) 독도등대

이 등대는 1954년에 처음 세운 것인데, 최초에는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았고 무인등대였다. 바다 한복판에 두 기둥이 우뚝 서서 위풍당당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바다를 비추는 독도등대가 서 있다. 독도는 망망대해 위에 깎아지른 바위 봉우리로 규모는 작지만 거제의 해금강이나 여수의 백도 못지않게 독도의 풍광은 웅장하여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동도와 서도 두 섬 사이 수면 아래로는 자갈과 모래가 환하게 들어올 정도로 맑다. 바다와 하늘과 조화를 이룬 독도의 자연 경관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 섬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 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 년이나 앞섬을 알 수 있다. 독도등대는 독도 주변해역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1954년 8월에 무인등대로 최초 설치되었으며, 1998년 12월 광력을 증강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바꾸었다. 현재의 독도등대는 백색원형콘크리트 구조로(높이15m) 백색 불빛이 10초에 한번 깜박이며, 46km의 먼 곳까지 불빛을 전한다.



나. 독도를 과연 관광지로 개발해도 될까?

독도에는 갈매기와 해양생물이 많이 서식해 있어서 자연환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면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물이 파괴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사람들에게 독도를 관광지화 시켜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고 있다. 독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만큼 큰 섬이 아니다. 게다가 독도는 새들의 고향으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독도를 방문하면 환경훼손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중한 우리의 국토인 만큼 배를 타고 둘러보면서 우리 국토로서 깨끗이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이다.

다. 독도가 인기 관광지가 되려면?

독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광단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소의 제약이다. 동해 목포항에서 2시간 30분, 포항에서 3시간이 소요된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니 실제로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불어, 섬이 다보니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등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도에 직접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독도가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을까? 출항했다가 파도가 높아 접안하지 못하고 주위만 배회하고 다시 돌아오면 독도가 관광지로 발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숙박·편의 시설 역시 더 필요할 것이다. 독도에 접안했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경우 숙식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식당·숙박업소 등이 부족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지도 둘레길, 시티투어 버스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 독도 관광 시 유의할 점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서 관광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짧고 선착장 정도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야 안전한 관광이 가능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음식을 아무 곳에서나 먹으면 안 된다. 난간



이 있긴 하지만 바다가 생각보다 깊어 파도가 세고 물이 차갑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계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 울릉도의 관광지

울릉도는 섬 전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기암절벽, 원시림, 원시 주거지 등의 다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인봉, 나리분지, 봉래폭포, 사자바위, 거북바위 등이 대표적인 자연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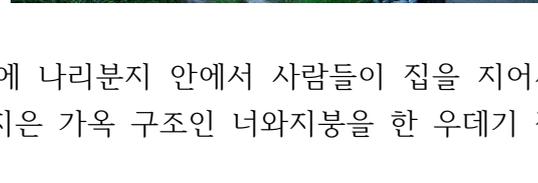
1) 성인봉

성인봉은 해발 984m로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형제봉 등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리분지 남쪽 외륜산에 위치해 있고 산의 모양이 성스러운 사람을 닮았다 하여 성인봉이라고 명명되었다. 연평균 300일 이상 안개에 싸여 신비감을 더하며, 정상에 제단처럼 된 바위에는 장군 발자국이라고 하는 족적이 있다. 너도밤나무 등의 희귀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정상 부근은 천연기념물 제 18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손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성인봉의 원시림 또한 천연기념물 제 189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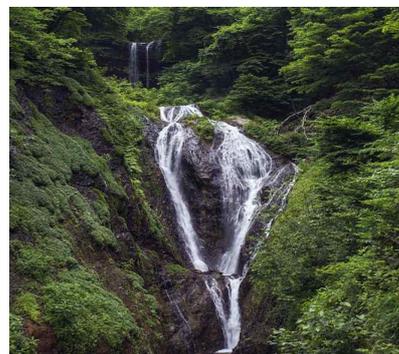
2) 나리분지

나리분지는 성인봉의 칼데라 화구가 함몰해 생긴 화구원으로 지금은 사화산이다. 세계에서 단 두 곳 밖에 없는 이중화산 지형으로서 지질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경사가 급한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지로 성인봉 아래에 있으며 화산활동이 중지된 후에 나리분지 안에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던 터와 특유의 자운 조건에 맞춰 지은 가옥 구조인 너와지붕을 한 우데기 집이 남아있다.



3) 봉래폭포

봉래폭포는 낙차가 30여m에 이르는 3단 폭포로서 울릉도의 도동과 저동을 비롯한 남부 일대의 중요한 상수원이다. 북서쪽의 나리분지에 모인 강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피압수가 되어 지표로 용출한 것이 지형의 기복을 따라 흘러 내림으로써 폭포가 형성되었다. 1일 유량은 약 3,000톤 이상이며, 주변



에는 연중 4°C의 바람이 나오는 풍혈, 투막집, 삼림욕장과 천연에어컨 등이 있다.

4) 사자바위, 거북바위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강한 풍랑을 정통으로 맞아온 만큼 풍화와 침식으로 인한 기암괴석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자바위와 거북바위이다. 울릉도 서면에 위치한 남양리 사자바위는 해안가 도로변에 바짝 붙어있다. 바위의 생김새가 사자 같기도 하고, 과거에 우산국을 정복하기 위해 사자를 풀어놓았다는 설화에 따라 명명되었다. 울릉도에서 낙조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사자바위는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서서 감상할 수 있다.



통구미의 거북바위는 거북이가 마을을 향해 기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어졌다. 엄마거북과 아기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통구미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



5) 공암

큰 바위 중앙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공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코끼리바위'라고도 불리는 공암은 울릉도의 3대 절경 중 하나로 여겨진다. 울릉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위의 모양이 코끼리가 코를 물 속에 잠그고 물을 마시는 모양을 하고 있어 코끼리바위라고 불린다. 또한 용암이 굳어 형성된 주상절리이기 때문에 거친 바위의 표면이 마치 코끼리의 피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울릉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바. 울릉도 관광 시 유의할 점

울릉도 관광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날씨이다.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의 동해바다는 파도가 높고 물살이 거셀 뿐만 아니라 울릉도 내에서도 날씨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울릉도 도동항으로의 입항과 육지로의 출항에 있어서 기상상황이 매우 중요하며 관광 일정을 편성할 경우에도 일기예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울릉도는 지형적으로 산지이기 때문에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을 흔하게 마주하게 된다. 이는 성인봉이

나 나리분지 등의 유명관광코스의 경우 고도가 900m를 웃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아이나 노인분들과의 관광을 계획할 때에는 비교적 평이한 관광코스를 알아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교통편이다. 울릉도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해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대여나 본인 승용차를 가져가는 등의 교통편을 미리 알아 봐야 한다.

3. 독도와 울릉도의 여행 기념품

가. 독도 오징어를 느낄 수 있는 빵, 오브레

독도와 울릉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에 있어 옛날부터 오징어가 유명했다. 요즘은 트렌드에 맞춰 독도의 오징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오브레’의 오징어 먹물빵이다.

‘오브레’는 오징어와 브레드를 합성한 말로 오징어 먹물을 다량 첨가한 특색 있는 빵이다. 오징어 먹물 빵은 울릉도와 독도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오징어 먹물, 해양심층수, 호박 양금이 첨가되어 울릉도 3대 먹거리가 모두 들어있는 영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방부제, 색소, MSG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식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오징어 먹물 빵의 수익금의 5%는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되어 독도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오브레는 울릉도 도동항의 앞쪽 골목에 위치해있으며, 한 박스가 날개로 포장된 20개의 작은 빵과 독도 문방구에서 파는 스티커와 엽서로 구성되어 선물용으로 추천한다. 울릉도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 주문을 통해 택배로 빵을 전달받을 수 있다.

오브레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02-1번지 (도동길 53)

전화번호: 054-791-5008

나. 문방구에서 독도를 알리다

독도 영유권 분쟁과 같은 중요한 현대사를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독도문방구’이다. 독도로 가는 관문인 울릉도 도동항에 있는 독도문방구는 더 많은 사람이 곁에 두고 독도를 생각하길 바라며 일상 소품들 속에 독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독도문방구의 김민정 대표는 5대째 울릉도에서 사는 토박이이다. 그녀에게 독도는 그저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앞바다, 생활 터전일 뿐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아이에게 “강치야, 독도 강치야”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강치는 과거 독도 앞바다에 살던 바다사자인데, 한때 독도 내에서만 약 4만 마리의 강치가 살 정도로 독도에서는 흔한 생물이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가죽과 기름,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강치를 남획했고, 결국 강치는 서서히 사라져 1970년대에 멸종한다. 김민정 대표는 이런 강치를 보면서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있는 독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 땅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독도 이야기를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독도 강치나 희귀 동식물을 캐릭터로 만들어 다양한 소품들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울릉도에 놀러 온 아이들을 위해 독도가 담긴 공책 2~3권을 만들어 판매했다. 울릉도에 관광 오는 학생들이 어른들이 사가는 기념품인 오징어나 호박엿만을 사 가는 게 아쉬웠기 때문이다. 학용품에서 출발한 독도문방구는 이제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 제품군을 점점 더 넓혀가며 독도백화점이 되고 있다. 인형, 의류, 컵, 우산 등과 같은 생활 소품들에는 독도 관련 일러스트는 물론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독도 문방구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53

전화번호: 010-8500-6044

다. 울릉도의 지역 특산물
왼쪽의 표는 울릉도 지역 특산물을 계절별로 분리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 특산물에 관련된 기념품을 소개하겠다.

구분	계절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① 작목명	산마늘	취나물	호박	우산고로쇠	
② 생산현황	재배면적(ha)	60	138	10	-
	연간 생산량(톤)	72	255	67	471
③ 주요 생산단지(업체)	산마늘생산자협의회	울릉농협	호박생산자협의회	울릉군산림조합	

1) 산마늘

산마늘은 우리에게 명이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나물 중 유일하게 마늘향이 난다고 하여 ‘산마늘’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울릉도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진 보릿고개에 목숨을 이어준다고 하여 ‘명이 나물’이라고 불렸다. 산마늘은 주로 장아찌로 많이 이용하며, 찜, 튀김, 초무침,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된다. 울릉도산 산마늘은 잎이 넓고 둥글다. 울릉도에서 산마늘은 주로 ‘명이 나물 장아찌’의 특산물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2) 미역취나물

주로 울릉도에 많이 분포하는 취나물의 종류 중 하나이다. 울릉도의 모든 산채는 하우스 형태가 아닌 노지재배 형태이므로 계절산채인 미역취는 그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날 때 채취하여 건나물로 만들어 연중 판매하고 있다. 울릉도 미역취는 햇볕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며, 잎이 크고 얇고 향이 진하고 조직이 부드러워 나물, 찜, 국거리 등으로 이용된다.



3) 호박

울릉도의 호박은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호박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념품 중 하나가 울릉도 호박엿이다. 울릉도 호박엿의 유래는 조금 특이하다. 울릉도 주민들은 원래 호박엿이 아닌 약재로 많이 사용되던 후박나무의 껍질을 벗겨 진액을 채취해서 만드는 호박엿을 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호박엿이 타 지역에 전파되며 발음이 혼동되어 호박엿이 유명하다고 널리 퍼졌는데, 당시 후박나무 채취 금지령이 내려졌고 호박이 상대적으로 싸 호박으로 엿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울릉도의 땅은 비옥하고 습기가 많아 큰 호박의 재배에 최적지로 꼽히고, 울릉도 호박이 육지 호박보다 과육이 두껍고 맷돌처럼 납적하게 생겨 단 맛이 강하다. 울릉도에는 호박엿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호박엿 공장은 3개이다.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관광 기업이 특정 호박엿 공장을 유별나게 광고하고 사도록 유도한다. 대부분 날개로 포장되어있는 사탕 크기의 엿을 20~40개씩 큰 봉지에 담아 팔며, 조청이나 호박빵과 호박제리와 같은 다양한 기념품도 함께 판매한다. 울릉도 호박엿은 가장 유명한 울릉도의 기념품 중 하나이며 선물로 주기에 적합한 기념품이다.



농협 호박엿공장 : 054-791-1005

동굴이 호박엿공장 : 054-791-2406

울릉도호박엿공장 : 054-791-2432

4) 우산고로쇠

우산고로쇠는 울릉도에서 나는 고로쇠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단풍나무 종류는 30종류인데, 그 가운데 우산고로쇠는 고로쇠나무와 비교하여 가지에 털이 없고 과실이 대형이다. 또한 울릉도에만 자생하고 있으며 잎이 여섯 개에서 9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일반 고로쇠와 구별이 된다. 예전부터 고로쇠수액을 채취하여 먹었는데, 그 후 계속된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울릉도에만 살고 있는 특산식물로 밝혀졌고 우산고로쇠는 대표적 기념품이 되었다. 울릉도 해발 600~800m의 2~3m 눈속에서 채취한 우산고로쇠 수액은 깔끔한 맛과 높은 당도, 사포닌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우산고로쇠 수액은 식수와 비교하면 칼슘이 약 40배, 마그네슘은 약 30배 높아 건강에 좋다. 우산고로쇠는 울릉도 지리적 표시 임산물 40호로 산림청이 지정 되어 있고 가격은 평균적으로 18ℓ 한 상자에 6만원, 9ℓ에 3만5천원이다.

라. 울릉도의 명물 부지갱이

부지갱이는 섬썩부쟁이를 울릉도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울릉도와 일본에서 자라며 울릉도에 집단적으로 재생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산채 또는 재배하여 나물로 먹거나 특산품으로 판매한다. 울릉도에서는 겨울 눈 속에서도 자라고 있어 사계절 채취가 가능하다. 이 중 겨울 눈을 뚫고 나온 첫 잎인 초물이 그 맛이 가장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부지갱이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울릉도 특산물의 대표 품목이다. 생채를 팔진 않고 주로 건채 200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데 이는 생채 1kg이상을 손질하고 작업하여야 나오는 분량이다. 부지갱이는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에 포장지는 같지만 수확시기와 농가에 따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부지갱이 건채는 뒷면의 손질법에 따라 산채비빔밥, 부지갱이 나물, 된장국 등 여러가지 음식에 활용할 수 있다.



마. 섬백리향에 독도를 담다, 독도 향수

섬백리향은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로, 천연기념물 제 52호에 등록된 꽃이다. 옛날부터 섬백리향은 그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하여 울릉도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고 한다. 경북농업기술원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은 이 섬백리향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독도 향수를 공동 개발하였다. 독도 향수는 다른 뜻도 있는데, 안용복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와 독도는 향이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섬백리향 직영 판매장에서는 독도향수 뿐만 아니라 섬백리향으로 만들어진 천연 비누, 화장품, 향초 등 여러가지 기념품을 볼 수 있다. 섬백리향의 연간 생산량은 약 100톤이며 그 중 70퍼센트를 가공한다. 또한 이익금의 일부는 독도사랑 기금에 이용된다.



바. 독도를 가지만 해도 주민이 된다! 독도명예주민증

독도명예주민증은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증서이다. 독도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독도를 선회하거나 직접 방문한 사람이라면 독도관리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독도를 입

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다음날 이후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독도 승선권에 기재한 방문 날짜를 통하여 방문 확인을 거친다. 명예주민증은 신청도 발송 과정 전액 무료이며, 상징적인 주민증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독도명예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배운임에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독도 방문객에 비해서 명예주민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혜택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독도와 울릉도의 음식

가. 울릉도, 독도 주민들의 식생활

울릉도는 지리 특성상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므로 다양한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울릉도민의 식생활은 옛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주민들은 음식들은 옥수수과 조, 감자가 주식이었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깍새를 잡아먹기도 하였다.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당시에 먹었던 ‘산마늘’이 ‘명이’로 불리게 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식생활이 열악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울릉도에도 음식이 동네마다 차이가 있고, 산채도 동네별로 종류가 달랐다. 남쪽과 북쪽지역에서 선호하는 음식이 각각 달라 통구미라는 동네에는 황밥을 명이밥보다 많이 먹었던 반면, 북쪽에서는 명이밥을 황밥 보다 많이 먹었다.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황밥과 명이밥을 먹은 데 반해 그나마 중산층은 옥수수밥에 감자를 갈아 넣은 밥을 주식으로 먹었다.

현재의 주민들은 과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울릉도 여행 시 꼭 먹어보아야 하는 음식인 따개비 칼국수, 오징어 불고기, 산채비빔밥 등이 그에 속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나. 울릉도, 독도 향토식재료의 종류

1) 명이(산 마늘)

개척 령 당시 명이로 명을 이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명이는 사계 식용으로 쓰인다. 눈 녹을 때부터 채취를 시작하며 요즘은 냉동고에 명이를 보관하여 쓴다. 성장 중인 명이의 줄기와 잎은 장아로 쓰인다. 완전 성장한 명이의 줄기는 물김치로, 잎은 짬으로 쓰인다. 주요 명이 요리로는 명이 뿌리와 같이 담그는 김치, 장아찌가 있다.



2) 섬 쑥부쟁이 (부지깽이나물)

울릉도 방언으로는 부지깽이라고 한다.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며 이른 3월 하순에서 5월 사이에 주로 채집하였다. 3월 하순 경의 새순이 올라올 때가 제일 맛이 좋다. 주로 시금치를 무치듯이 요리하여 먹는다.



3) 호박

육지에서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오징어와 호박엿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릉도 곳곳에는 호박엿 공장과 판매점이 즐비하여 호박엿의 본고장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울릉도 호박엿은 재료에서 만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육지와는 다르다. 먼저 호박의 경우, 울릉도 호박은 육지 호박에 비해 과육이 두텁고 무겁다. 울릉도 호박엿은 호박이 30% 이상 들어가 너무 단단하거나 달지 않다. 다음은 제조과정인데, 육지에서는 옥수수가루에 엿기름을 넣고 삭히는 반면 울릉도에서는 옥수수를 밥처럼 찌서 자루에 담아 짜낸 뒤 엿기름을 넣고 달인다. 이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호박엿을 뽑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엿을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엿을 길게 늘였다가 반으로 접는 작업을 수 없이 되풀이하여 엿 속에 공기구멍이 무수하게 생기게 하는데, 이 공기구멍이 많을수록 먹기에 좋고 이에 달라붙지도 않는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호박엿을 먹고 배를 타면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4) 오징어

울릉도 청정 해역에서 잡히는 울릉도 오징어는 기후와 햇빛이 오징어 말리기에 가장 적합하여 독특한 울릉도 오징어 맛을 볼 수 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며 비타민, 무기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스태미나를 강하게 한다. 오징어 회, 오징어무침, 오징어 불고기, 오징어 찜, 오징어 전, 오징어 젓갈 등으로 많은 요리에 이용되며 울릉도 주민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들이다.



나. 울릉도 향토음식의 종류와 레시피

1) 오징어 내장탕(Squid Intestine Soup)

오징어의 내장에는 흰 부분과 갈색 부분이 있는데, 오징어 내장탕은 둘 중 흰 부분으로 만든다. 옛날에는 울릉도에 오징어 조업 후 손질을 하면 어판장에 쉽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장이 현재에 들어서는 오징어의 수확량에 따르기도 하며 내장탕용으로 따로 판매도 하고 있다.



2) 홍합밥(Mussel Rice)

열합 또는 참담치라고 불린다. 울릉도 홍합은 그 크기부터가 어른 손바닥만 하며 속살이 붉은 빛을 띠며 육질이 쫄깃쫄깃하다. 껍질에는 각종 해초와 바다 생물들이 붙어있어 육지의 양식 홍합과는 겉부터가 다르다. 홍합은 구이, 전골, 불고기로도 조리하여 먹지만 가장 인기인 것은 당연히 홍합밥이다.



<울릉도 향토음식 분류표>

분류	소분류	종류
주식류	밥류	홍합밥, 산채비빔밥, 대항밥, 따개비밥, 더덕밥
	죽류	강냉이죽, 전복죽, 홍합죽, 따개비죽, 호박죽
	면류	따개비 칼국수
부식류	국, 찌개류	오징어 흰내장탕, 손콩치 완자 된장국, 돌김국, 오징어 누

		런창찌개, 엉겅퀴 해장국, 삼나물 육개장
	찬류	오징어 물회, 콩치 물회, 약소숯불고기, 더덕구이, 감자전, 삼나물 초무침, 산채전, 홍해삼 물회, 콩치 부침개, 대항 무침, 홍감자전, 고비나물 무침
	저장식품류	명이장아찌, 부지깽이장아찌, 더덕김치, 콩치젓갈, 오징어 젓갈, 전복장아찌, 오징어밥 식혜, 엉겅퀴장아찌
기호 식품	떡류	감자떡, 호박떡
	술류	옥수수엿청주, 마가목주, 호박막걸리

III. 결론

1. 요약과 결론

독도와 울릉도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산업 즉 관광 자원들과 관광 수단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지, 관광 기념품 그리고 관광 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까지 다양한 경로로 조사하였다. 이 자료가 독도나 울릉도로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2. 느낀 점

이전의 우리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그저 우리 땅이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그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것이 유명한지 알지는 못하는 점 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땅인 것을 아는 것에 나아가 그 곳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 할 수 있었고 독도의 관광지로서의 자원들,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과연 그 자연을 관광지로 개발해도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독도의 관광을 위해서 준비할 점 까지 직접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독도와 울릉도의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독도나 울릉도의 풍부한 관광 자원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그들 또한 독도와 동해바다에 대한 사랑을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점,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깊게 알아 볼 수 있어서 뜻 깊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출처 :

<http://dokdo.ngii.go.kr/dokdo/contents/contentsView.do?rbsIdx=57#none>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넷

<http://www.dokdo.go.kr>

경상북도 공식 독도 홈페이지

사회과학담론과정책(제5권1호), 2012년4월 : 189~210

‘울릉도·독도 관광(Ecotourism)의 현황과 생태관광기반에 대한 연구, 홍성일’

https://www.youtube.com/watch?v=muB4_LNZ2Rk
<https://www.youtube.com/watch?v=wcN57KJNKP8>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01673>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177728>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105&docId=274462992&qB=64+F64+E6rSA6rSR7Ke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m9OdySD0sscp8WWMGssss14-294915&sid=Bufp3Jyf4nnjh%2Bxy/B9FHw%3D%3D
<http://www.ulleung.go.kr/tour/map.ht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690&cid=40942&categoryId=3315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5715&cid=46617&categoryId=4661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298&cid=43733&categoryId=4373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99082&cid=42856&categoryId=4285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99467&cid=42856&categoryId=4285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731&cid=50223&categoryId=5105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85018&cid=43740&categoryId=4417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99471&cid=42856&categoryId=4285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299&cid=43733&categoryId=4373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aith_9095&logNo=221109115302&parentCategoryNo=&categoryNo=2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http://carol1595.tistory.com/74>
<http://www.benefit.is/18228>
http://www.menupan.com/restaurant/goodrest/goodrest_view.asp?id=13886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yechon49&logNo=220539163899&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src%3Ds%26source%3Dweb%26cd%3D16%26ved%3D2ahUKEwj6zpe8udjcAhWLVLwKH YvnDiAQFjAPegQIBh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hyechon49%252F220539163899%26usg%3DAOvVaw3LY4_F4UKydKR22mFMkp5Q
<http://www.cconma.com/product/P001003000-0004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505241754471
<http://asg0001.tistory.com/entry/%EC%9A%B8%EB%A6%89%EB%8F%84%ED%96%A5%EA%B8%B0%EA%B0%80-100%EB%A6%AC%EA%B9%8C%EC%A7%80-%EA%B0%84%EB%8B%A4%EB%8A%94-%EC%84%AC%EB%B0%B1%EB%A6%AC%ED%96%A5-%EA%B4%80%EA%B4%91%EC%83%81%ED%92%88%EC%9C%BC%EB%A1%9C-%EA%B1%B0%EB%93%AD%EB%82%98%EB%8B%A4>
<http://www.pbijou.com/2016/10/dok-do-id-card.html>
https://post-phinf.pstatic.net/20160701_86/yjhedc_1467335368533AOklz_JPEG/mug_obj_14673538995460267.jpg?type=w1080
<https://blog.naver.com/yeojinkim/221254114559>
<https://blog.naver.com/kdustn9060/2211170122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070220>

<https://blog.naver.com/jinyo6300/220637392248>

<https://blog.naver.com/jdchol/220130013684>

http://img.phinf.pholar.net/20160619_292/1466269233606dtqCK_JPEG/p